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社会에 變革을
- 2、教会에 革新을
- 3、世界에 所望을



1968년 10월 11일

오후 2시 대관여학원

차펠에서 역사적 대

전이 개막 되었다

대 전

선교 60주년 기념식전

회장앞 정문에는 큰 글자로 선교 60주년 기념식전의 행막이 걸리어있고 푸른 가을하늘은 재일한국인의 구원의 성업을 축하하듯 한없이 청명하였다. 시간전에 이 세기적 대전에 참가하려는 교우들 구름같이 모여들어 60년의 성업의 크나큰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바치려는 식전으로 우리의 지성을 모두어서 열리게 되었다. 오후 2시 정각에 1300명의 교우가 일본전국에서 모여 웅장한 주악에따라 본국 캐나다 일본 각나라 대표들을 내빈으로 모시고 최정수목사의 사회로서 엄숙히 식전이 시작되었다. 김경관목사의 지휘로 성가대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에 역사의 주된선 그리스도의 성업을 높이 높이 찬양하였다. 사회자의 초사에 일동이 기립 찬송 7장을 화창하고 정일수목사가 60년의 역사속에서 이룩된 오늘의 교회를 유산으로받은 우리의 감사와 앞으로의 중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곡한 기도를 올린후 김원치목사가 금번 기념식전의 주제 성구로한성경히브리 13장 7절을 17절을 봉독하다 유석준장로가 약사를 낭독하니 60년 역사의 주마등을 돌리듯 변천이심한 근대사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주와 함께 걸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눈속에 역력히 그려내게 되었다. 성가대가 「영광의 십자가」라는 성가를 만당이 울리자게 찬양한후 총회장 오운태목사가 과거 60년의 재일한국인의 실정

과 현시점에 서서 역사와 민족의 피할수 없는 현실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교회가 지니고 나가야 할 특수성과 금후 60년을 전망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자세를 「그 능욕을 지니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를 결말로 뜻 깊고 힘찬 설교를 하였다. 일동이 기립하고 루터의 역사적인 찬송 371장을 화창한후 이인하목사가 각나라기독교계의 대표와 국가대표들을 내빈으로소개하니 실로 세계교회와 유대를 실현한듯 찬란하였다. 내빈을 대표하여 캐나다 장로교대

표 막카이박사 미국 연합장로교회대표 윌립스박사의 축사가 있은후 이성애양의 아름다운 독창으로 우리의 감사를표시하고 이어서 모국교회를 대표하여 한국 Y M C A 연맹총무 김치목목사의 역사적인 뜻있는 축사와 일본교회를 대표하여 일본 N C C 의장 大村勇목사의 축사로 재일한국인의 교회적 입지적 특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오경세목사의 독창에 식전을 보다 더고양하다가 조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주일대사대리로 이기향영사의 축사와 거류민을 대표하여 거류민단 중앙총본부 정동화 부단장의 축사로 감명깊은 축사를 마쳤다. 전영복목사가 일동기립한 가운데 금번 식전의

맺세이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우리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발표하니 만장의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일동이 소리를 합하여 60주년 기념가를 세계에 들릴듯한 기세로 합창한후 과거 30년이상 일본에서 교회를 봉사한 심은택 이정열 박명준 서재훈 김재술 유석준 최성팔 이선조 한윤주 유시환 임학주 제씨를 표창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후 김광수장로가 감사의기도를 올렸다. 송영 582장을 제창 오운태목사의 축도에따라 최수현군의 주악으로 의의깊고 역사적인 선교 60주년 기념식전을 마쳤다.

저녁 7시부터 기념식전의 제2부에 들어가 김경관목사의 사회로 오경세선생부처의 이중창 금강학원 무용부의 민족고유무용 김덕성목사의 70주년을 향하는 사업계획 설명 영화 「비유」를 이어 연합 합창대의 합창과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의 프라가드를든 어린이들의 베몬스드레슈과박석규목사의 강연 기념가합창 또 영화 「공주님의 짝사랑」 등으로 다채한 기념행사를 끝마쳤다.

(기자 총간사 전영복)

관지로 두게되었으며 1955년에 일본 N C C 에 가맹하였다.

1958년 「우리의 살길은 예수」라는 포어로 東京교회에서 선교 50주년 기념식전을 거행하게됨바. 때마침동경에서 제14회 기독교 세계교육대회가열리게되어모국대표 29명과 캐나다 대표들이 우리 식전에 참가하였다.

1958년부터 68년까지 10년간은 세계교회 모국교회 일본교회와의 교류를 빈번하게한 시기였다. 1959년 제18회 세계 장로교 연맹총회와 제19회 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였고 1964년동남아 기독교협의회 (E A C C) 에 가입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1965년 동남아 청년대회 대만장로교총회 100주년 기념식전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1968년 육살라 W C C 대회에 대표를 보냈다. 전후 끊어졌던 한일양국교회 사절단 교류 1966년일본 기독교단 大村勇議長이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의초청으로 도한 사과한 사건으로 화해는 진전되었다가 동년 한국에수교 기독교장로회 감리교회 각대표가일본 교단의 초청으로 도일 양국교회연합의로 금후 교류의 증보역할은 재일대한 기독교회로 결정하였다.

캐나다장로교회와는 자매관계를 가지게하고 미총위원회를 해산하고 선교사를 총회목사로 일하게 하였다. 전후 33개소의 예배당을 신축하였고 교회 전도소 54개소 교인 3000명으로 선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의표어밑에 모국교회 캐나다교회의 실행위원회조직과 일본교회의 찬조위원 위탁으로 앞으로 70주년을향하여 총신향발전과 비약을바라 보면서 1968년10월11일 선교60주년 식전을 새로운 역사창조의 출발점으로 삼으려한다.

(사진은 東京교회현당식 1951,3,16)

在日 大韓基督教 60年 略史 (2)

1934년 모국교회 50주년 기념을 계기로 재일조선기독교회가 대회를 조직하고 5지방회를 두었다. 무력무력 자라오르는 재일조선교회에 때아닌 서리가 내리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선교사들은 다 퇴거하고 교회는 일본기독교단에 가입되어 수난의 역사를 꾸미게 되었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의 기쁜일을 맞이하여 10월22일 목사2명 장로4명이 회합하여 재일조선교회 재건발기위원회를 조직하고 10월 30일 大阪東成교회에서 연합회 창립준비회를 열었으며 11월15일 京都교회에서 일본기독교단 정식탈퇴와 재일조선교회 재건 제반을 결의하였다.

1947년 제3회 총회때 연합회를 총회로 개조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완전한 교회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총무 전도 교육 부녀 청년 후생 재정 시취 치리 각국을 두어 판서 판동 서남 3지방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여전도회연합회 청년회 연합

회 중앙위원회등 조직되어 교회형성과 선교사업에 힘썼으며 1950년에 미총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교회 독단 선교방침을 개정하였다. 2년에 한번 유학생을 캐나다로 보내어 캐나다교회와 긴밀한관계를 가지게 하였고 다음해 기독교신보를 기



멋진 印刷는
僑文社 에서

第 24 回 總 会

60주년식전을 앞두고 10월9 10 양일간 경도교회에서 모인 총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되었다

※ 개회예배 (10월9일)

최정수목사의 사회로 찬송 4장합창으로 시작 기도 성경 사도행전 13:43~49봉독 총회장 오윤태목사의 설교와 기도가 있었다 찬송 548장 합창후 김경찬목사 집행일 강증구 김광수 김중태 이준섭 4장로의 배찬으로 성찬예전이 엄숙히 거행되고 찬송 461장을 합창하여 총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는 끝마쳤다

※ 개회식

김득삼목사의 사회로 총회를 개회 총대70명중 17명의 결석뿐으로 성회 오윤태의장의 개회성립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안도선목사와 김창일 김창업 민중삼 김기현 네장로의 신총대를 환영한 후 다음과같은 내빈의 소개가 있었다 Dr. 막카이부처 (카나다장로교회 총회장) 막크레텐드여사 (카나다장로교회여선교회회장) 란살목사부처 A.막카이목사 부처 宮内俊三목사 (일본성

서교회) 박상근 김병순 기원형 지원용 김치목 박석규 이근설 이기덕 각목사 탈봇목사 (카나다교회 부총무)

※ 결의사항

①서남지방에 교육주사 1명과 송 요청안 교육국에 회부실행하게 했다 ②福岡교회 보육원 설립에관한 보조 요청안 120만원보조요청은 보육에 관한 일은 교육국에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회부가결 ③宇部교회 목사관 건축비 보조 요청 (80만원) 건축위원회에 회부검토 가결 ④KCC회관과 大阪교회당을 합동으로 건축하자는 안 KCC위원회의 의견종일을 전제로하고 KCC위와 건축위에 일임하여 검토하기로가결 ⑤西新井교회 장로일명 증원 요청 허락가결 ⑥西新井교회 목사관건축비 보조 요청 요청액 100만원 보류하기로 가결 ⑦천원회장을 제각회의 준회원 (발

언권있음) 으로 출석케 하자는 안건(청년국) 확인실시하기로 했다 ⑧선교60주년 기념사업 기금으로 500달러를 카나다교회 장로회에게 기증하자는 안 가결 ⑨下關교회 백의유치원 특별보조 안건 보조액 10만원 선교60주년 실행위에 산에서 보조가결
※ 기도회
사회 정인수 설교 오윤

태 각목사 <사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후 김안홍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다
10일아침 한재수목사의 사회설교로 경건회가있었고 폐회예배는 오윤태목사의 사회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카나다교회 총회장 막카이박사의 설교로서 모든 순서가 10일 저녁 7시에 끝마쳤다

기로 등의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중부지방 여전도회

중부지방 여전도회의 제8회 정기대회가 나교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중부지방을 위해오신 안도선 선교사 부처와 신영자전도사도 참가했었다 경과보고가 있은후 신입원이 다음과같이 개설했었다
▶회장 권인숙 부회장 김성자 서기 이영선 부서기 정애라 전도부장 신순준 회계 김보배 부회계 유영애 문화부 김성자

여전도연합회 정기대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10월 3 4일의 양일간에 名古屋교회에서 20회 정기대회를 가졌다 57명의 대의원이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신입원과 결의가 있었다
▶회장김항운 부회장 이성실 서기 권인숙 부서기 김주일 회계 오선비 부회계 로진악 전도부장 김만임 교육부장 강필예 후생부장 윤석남 제정부장 김수태 규칙부장 김주일 결의사항은 오까자끼교회를 월 3천원씩 제속보조 서남지방에 월 8천원으로 3천원 증액 보조 나드회에

2만원 보조 金沢에 전도소를 설치하자는 결의 등이 있었다

관서지방 여전도회

제15회 관서지방 여전도회가 9월13일 경도교회에서있었다 지방회장 김원치 부녀부장 배기환의 각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하였다
▶회관 건축을 하자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

안도선 목사 위임

카나다 장로교에서 중부지방에 파견된 안도선목사는 10월 7일 名古屋나교야교회에서 위임식이 있었다 이날 名古屋교회의 신영자 전도사의 위임식도 함께있어 카나다교회 총회장 여선교부장 한국 주名古屋윤인현 영사등의 참석한가운데 마쳤다

잊지마시라 역사의 60年

—선교 60주년 기념축사—
최 문 환

하나님의 축복아래 재일한국기독교 선교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한량없이 기쁘고 감격합니다

더욱이 성스러운 선교60주년 기념식전에 정시에 동참하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역이오니 이시간을 갓일수 있게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감격이 너무도 크게 본인의 심정에 충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사의 말씀조차 표현하기에어려울 정도로 벅참을 느낍니다 재일한국기독교회 여러분을 대하고 보니 본인은 시편 137의 말씀이 실감있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노라 그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무리를 사로 잡은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청하며 우리를 황폐케한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위하여 시온노래를 흥겨운 노래하라고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있어서 어찌 너희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

른손이 그 채주를 잊을찌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혁가 내입천장에 불을 찌로다

이 얼마나 우리들의 실정과 이스라엘민족사와 방불함니까 저들의 애사는 바로 우리들의 그것입니다 그러나 저들과는 크게달음이 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을 거러버렸고 사로 잡은자에게 우리를 황폐케한자에게 시온의 노래와 기쁨을 들어 줄수 없다하며 손의 채주를 잊을 것이며 입의혀는 입 천장에 불기를 구하였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들을위하여 시온의 영광스러움을 저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60년을 하루와같이 역사의 소유물이 슈여서도 행복을 헤치면서도 불철히 힘써왔기때문에 오늘의 축복을 받으셔서 이 땅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6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 계속 =
(한국기독교장로교회총회장)

각 지방회 열 립

재일대한기독교 각지방회는 정기 지방회를 9월중에 거행했다 금번의 지방회는 선교 60주년기념행사를 앞둔시기 였으므로 그에대한 대책도 검토하면서 더욱새로운 교회사명을 내어걸며 활발한 건의들이 있었다

關東地方会

9월25일 横浜교회에서 개최된 제19회 관동지방회에서는 선교60주년 기념에 해당하는 해에 교회를 새롭게하며 선교와 봉사에 모든힘을 집중하기로하고 아래의 임원과 부서책임자를 선출하였다 ▶회장 이인하/부회장 황재정/서기 맹철회/부서기 황희생/회계 권태악/부회계 이영흥/전도부장 오윤태/교육부장 황재정/청년부장 맹철회 부녀부장 심은택/후생부장 김재왕/치리부장 이인하

오래동안 지방회의 숙제였던 공동모지 건설은 요코하마 일본기독교단 시미

즈가오까교회의 호의로서 그기지내에 있는 모지에 건설하게 되었다

關西地方会

제19회 관서서지방회는 9월 17일 大阪北部교회에서 10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이날 결의된 사항은 明石에 전도소 설치의 안이며 각 부활동에 있어서는 부회를 수시로 열어서 충실한 직무를 수행하자는 결심을 굳게했다 신입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인수/부회장 최정수/서기 유석준/부서기 최경식/회계 김관옥/부회계 김창업/전도부장 전영복/교육부장 윤종은/청년부장 배기환/부녀부장 김원치/후생부장 김중대/시추부장 최정수 치리부장 이종현 시찰부장 김경관

西南地方会

제18회 서남지방회는 9월10일에 小倉교회에서 열

렸다 안건은 신년도에 宇部교회 목사관을 건축하는 데 보조요청에 허락하기로 했다 개척전도에 주력하기로하고 福岡교회의 1670년도 목표로 보육원 설립보조 요청건은 총회에 상정키로 가결했다 신년도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덕성 부회장 홍영기 서기 김득삼 부서기 최창화 회계 박남재 부회계 최영모 전도부장 한재수 교육부장 최창화 청년부장 김득삼 부녀부 홍영기 후생부장이선조 치리부장 김덕성

中部地方会

제5회 중부지방회는 9월23일 大垣교회에서 열렸다 전의안은 名古屋교회의 영선유치원 재개시건 大垣교회 단임목사 파견요청등이였다 신입원은 ▶회장 백남철 부회장 박명준 서기 박현설 부서기 이정열 회계 김병기 부회계 김광수 전도부장 박명준 교육부장 김승준 청년부장 김안홍 부녀부장 신영자 치리부장 백남철

「説教」

在日韓国教会の今日と明日

—ヘブル人への手紙 13章13節—

したがって、わたしたちも、彼のはずかしめを身に負い、當所の外に出て、みもとに行こうではないか。

- 1、過去60年を回顧
- 2、現時点に立って
- 3、今後60年を展望

私どもは、今宣教60周年を迎え、式典を挙げるに当り現時点に立って、謙遜に過去60年を回顧し、伸いては今後60年を展望しようと思う。

「誰か、異郷の悲しみを喜びとし、故国を背に生を楽まんとし、非道の権に押しひしがれんとする時、力なき者何をもて抗せん、よんどころなき、時流に流され、故土に袂別してシベリアの荒野に或は涙して玄海の波にもまれ奴隷の如く引かれ行きし同胞の教幾何なりしぞ、近時日本に移住せる同胞の実態を伺わんか、朝に夕に出て行く連絡船に伺い知らん、朝鮮の経済恐慌に加え、年を追うて頻々たる天災に生きる道を求め日本に渡航する者、日に350名を越えると言う。最近の統計によれば、関西地方になだれ込みし同胞、28萬になんなり、この同胞の明日は何を望んでのものか、8・9年前、日本の好景気の波に乗り移住せし同胞の、工場・商店・会社等に職を得し者少なからざりしが、近來日本の時勢不振により失業者は後を断たず、同胞の生活貧困その極に達し解結するすべもなし」

以上は、1925年、朝鮮耶穌教長老会總會第十四回總會に提出された。在日関西地方教会連盟の教役者派遣嘆預書の一部である。当時の経済報告書によれば、韓民族全人口の80.8%即ち1,700萬が生活苦に喘ぎ、当時韓国に住む日本人の平均月収57円54銭に比し韓国人のそれは3円38銭と言う、政治的又経済的の苛酷な植民地政策の下に希望もなく自由もなく呻吟するこの民に長老教会監理教会連合ミッション会は教役者を日本に派遣し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伝えることにより彼らに希望と生き甲斐を与えた。教会は只一つの慰めであり力であった。

今ここに60周年を迎え、過去60年を回顧するとき第一に思うことは我々の先輩が青年

労働者に伝道したことである1907年東京留学生伝道を始めとして20代青年労働者が日本に移住して来たのに対しての伝道であった。望みなく人的資源として日本に送り込まれたこれらの青年労働者に福音は大きな光となった。当時の伝道者達は尾行する刑事達の面前で泰然として大膽に福音を伝えた。第二に思うことはカナダの姉妹教会の強力な宣教であった。母国長老監理宣教師連合会が総力をあげて日本に伝道していた時、この救霊事業にカナダの教会は、有力な宣教師を派遣し我々と寝食を共にして専念宣教の業にはげんだ。当時の韓国人にとって精神的に加え生活の貧困による人生苦こそ大きかったカナダ宣教師は物心両面に力を尽し、ここに宣教の業が世界の教会の協力によらねばならないことを実証した。

貧困は当時の韓国人教会の姿そのものであったので、礼拝堂もなく時には一部屋の間借りで礼拝の場をつくり或は外国人YMCAの一部屋、信徒の家庭に礼拝の場所を求めていた異郷の地に神を讃美する韓国人教会はこうして貧しさの中に肌を寄せ合つての強い固い集団をつくって行ったこうした日本殖民時代の私共の教会は、宣教師、牧師、聖徒等の汗と血の犠牲によって形成されて行った。

2、現時点に立って

戦後24年間、祝福された環境の中で福音が伝えられ、信仰生活を享有した。第二次大戦の火中に多くの先輩たちは投獄され死の谷を過ぎて来た遺産を我々は受け継ぐこととなり自由と繁栄の中に宣教の使命を担うこととなり、終戦時210萬の同胞が60萬に減じたとは言え、異国の60萬は大である。思想の混沌、倫理の無軌道、精神的貧困の同胞へ我々の生きる道はイエスであることを証して来た。20余年を過ぎ所謂一世は日と共にこの地上から去り二世・三世代となりつつあるこの時点に立ち、世界教会と呼吸を同うし深い信仰に生きんとしている

のである。分に過ぎる礼拝堂を終戦後33個所建立することができた。日本全域に亘り教会を形成し健全な教会組織を次々の時代へと備えをなすことができた。思うに今日の祝福が我々の求めて得たものでなく努力の果実でもなく悲惨な戦争を通して与えられた自由と解放、祖国独立による神よりの天賦の恩寵であることを思う時、主の聖前に頼いて感謝に涙ぐみ栄光を神に帰し奉るべきである。今やこの時点に立ち只へりくだって僕らの姿を取り仕える教会として新しい時代に立ち向うべきである

3、今後60年を展望

私どもはこの時点に立ち来るべき60年を指向しよう。過去に於て私どもの教会が単純な十字架の福音をかざし深い聖書の信仰に根を下し、自治・自給・自立の精神を備え土着化する教会形成に今日的な

課題を担うことによって、今日の発展のあったことを思う時、来る60年を望む私どもとして今日この式典に母国教会の代表的な方々と席を同うしカナダ長老教会の総会長始め代表の方々、又世界長老教連盟、米国長老教会代表、台湾の教界代表、地元日本教会と一つ場所にあることを強く感じつつ、この式典に座す時、この姿こそ今ある在日大韓基督教のそのまの姿であることを思う。私どもは、世界の教会とその責めを分つと共に最も近い日本教会と深く提携し同胞伝道のみでなく日本人への伝道にも深い祈りを持ち責任を担いたいと思う。

未来への推測は、只神の御経論の中にあるものであって私どもの量り知るべきもないことではあるが、只知ること、それは、如何に時代が変貌しようとも、真実なる福音のみ、未来子々孫々の生きる生命であり我々の隣人を生命に導くものである、と言うことである日本津々浦々教会のみが救いの船であり同胞の涙をぬぐう避けどころとなることである。そして又、時に応じて人間社会全域に神は創造的な力を賦与し、すべての時代の和解と贖罪の業を続けるこ

とであらう。これこそ今日の教会の責務であり、至上命令として応答すべき担わされた使命であるのである。

「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彼の十字架を負い當門の外へ」出て行くべきであるここに私どもが一つのことを予見したい。10年後の70周年式典に臨む一世の生存者は物故者の霊前で老境肅然たるものであろう。時代は今日の青年が担い手となっているであろうことである。

私どもは向う十年間多彩なプランを持っている。時代を追い時の先覚的役割を果しつつ日本津々浦々に福音を伝え只ひたすら福音の宣教にのみはげむならば、神これを嘉とし給うて、日本の全域に救霊の聖業がなし遂げられるであらう。

60周年式典は未来への健実な発足であり、飛躍への強力な踏み台となるべきである。福音こそは生命の泉であり溢れ出る力の源である。声高らかに讃唱する讃美の音が時代を超え永遠への凱歌であり、限りなき神の栄光への讃美である。神この式典に主となり給わんことを祈る。

(総会長 吳允台)

韓国代表団との合意書公開

10月18日韓国基督教教会代表団25名の諸氏を大阪空港に迎えた。在日大韓基督教教会は、これら代表団を中心としての歴史的な行事を重ね22日午前7時30分京都教会に於て最後の礼拝を捧げ、その席に於て21日に行なわれた両教会の在日同胞宣教諸般対策協議会に於て合意に達した合意書を公開した、これによって過去60年の在日韓国人宣教に織り込まれた本国教会の宣教歴史を新たにし、70周年に向つての建実な発足の地がためをすることができた。その合意書は次の通りである

合意書

韓国教会代表団は1968年10月18日より22日に亘り在日大韓基督教宣教60周年記念行事に参加して各教会を訪問し在日大韓基督教教会代表と協議会を持ち在日同胞宣教事業を援助するため次の事項の合意を見るに至った。

1. 在日同胞60萬は民族性の異なった日本国民と共存しつつ思想的に対立せる同胞の啓蒙民族性を喪失せんとする青少年の善導等、至難な問題に当面している。両教会はこうした異域の特殊状況

の中生活している在日全同胞に、キリストの和解の福音を宣教することに対して協力する。

2. 両教会は在日同胞青少年の為の教会教育及び学校教育に協力し、彼らをして基督教的人格の形成により韓国民族の新しい価値観と倫理観を保持するようにする。

3. 両教会は基督教精神に立脚して在日同胞の福祉事業と民族文化の向上に協力する上記の目的を達成する為韓国教会は在日同胞宣教事業後援

会を組織し在日大韓基督教教会と深い紐帯を継続するよう協する。

1968年10月22日

(在日大韓基督教教会代表)

吳允台 田永福 金宮玉
崔京植 金元治 麦仁道
崔正洙 裴琪煥 玉文錫
李仁夏 俞錫濬 金光洙
金徳成 丁仁寿 朴命俊
金在述

(韓国教会代表団)

卞鴻圭 李炳嵩 安成鎮
金東銖 金徳洙 洪正欽
韓完錫 李夏米 安昌基
張聖煥 李潤湖 崔錫柱
金仁燮 崔文煥 盧弘燮
安重基 金吉昌 成甲植
金允植 李昌植 金知吉
曹徳鉉 尹春柄 金泰奎

韓国と私の決心

日本家庭文書伝道協会総主事 田 中 光

眼下を見たらすでに韓国上空を飛んでいました。小学生のときに画家だった父につれて、平壤の近くの港鎮南浦までいったことがあります。が当時、山々は夏だというのに緑の山脈でなく、赤肌のみえる荒れた山々だったのが、印象的に頭にのこっていました。

しかし、今見事な美しい緑色の山々になっていましたので、びっくりし感心したのです。圧政下の植民地時代とちがって祖国を愛する韓国の人たちによって、復興している息吹が上空からも第一に感じられました。と、同時に私はあの部落この部落と目を転じながら、36年間の苦しみ血を流してきた時代のことを思い浮べて、一日本人としてすまない気持ちでいっぱいになりながら、ソウルへと向っていました。

今度、訪韓する3年前に香港で、家庭文書宣教会（E・H・C）アジア総務会議がありましたとき、韓国の総務の報告を聞きました。それは太平洋戦争において日本の軍隊に、殺害された韓国のクリスチャンの数は判明したもの7,909名・重傷5,961名・46,088名は投獄された——というものでした。私はこれを聞いたとき少なからずショックでした。日本の罪悪について私はよく知らなかったのです。そのようなことを知ることのおそすぎたことを申し訳なく思いました。

私は香港から帰国してから、日ごとの新聞や図書など韓国に関する記事について特に注目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した。特に韓国の歴史を3冊ほどですが読みました。三・一独立運動当時の部分はくりかえし読みました。歴史的に日本がいかに韓国に迫害してきたかを私なりに理解し、

私個人としても心を痛めています。このような中において在日韓国人ヘトラクト伝道するために韓国E・H・C日本支部をつくるべく李昌植総務が訪日、在日韓国総会から崔忠植師が選出され、私は上京された崔師と心からしたしく在日韓国人60万人の救霊について語り合い祈り合うことができました。全力を尽してこの兄弟に協力しようと心に決めたの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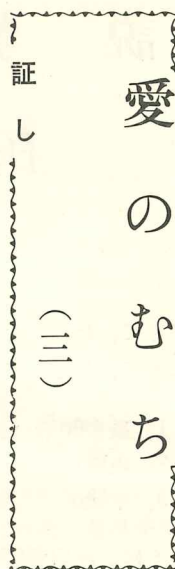
そのうちに韓国E・H・Cより私は招待をうけました。韓国E・H・Cは世界33あるE・H・C Officeのうち最大最強の陣容をもっているE・H・Cですから、そこで研修

することは、私は実に有益であることを喜びました。韓国E・H・Cでのまじわりは、日本人である私を心から歓迎して下さ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し、私も韓国の愛する主にある兄弟姉妹を心から愛しました。わずか1週間の滞在でしたが、別れるとき涙で別れをおしましたほどです。

私の訪韓のいちばん大きな収穫および決心は第1に36年間、日本が韓国に与えてきた迫害行為についてまず日本のクリスチャンにそのことを知らせる必要があること。第2に、長い年月逆境の中にやむなく日本に在住している

在日韓国人への福音宣伝に対して、文書伝道をさせていたでいる私として許される限り、日本にある韓国家庭文書宣教会への協力をとおして在日大韓基督教会に協力したいこと。

第3に、共産主義の問題に容共の国である日本の中について、忠告する必要があること。実際上は、文書の宣伝力ととりなしの祈りのグループを最大限につかって実行にうつしてゆ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すでに、私のデスクには、私が執筆した新聞記事を読んで知らなかった「過去になしてきた日本人の罪を悔い、これから韓国のために祈ります…」という手紙がく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喜んでいます。どうかあわれみ深い正義の主が、文書の宣教力を用いて韓日の、和解そして救霊へとみ業をあらわして下さいますようお願いしております。



鈴木一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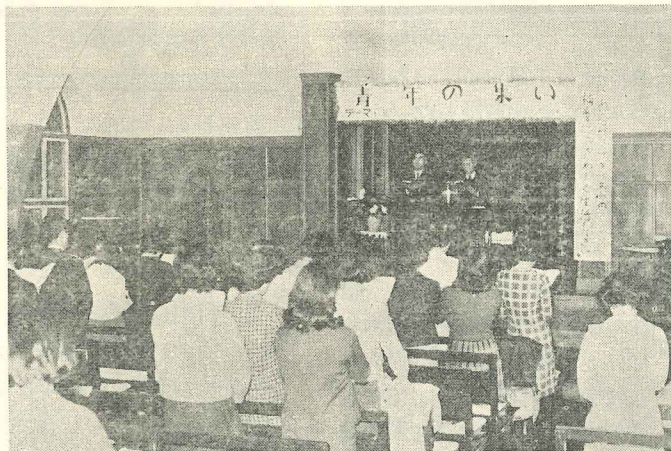
「今日に至るもなおモーセの書が朗読される度におおいが彼等の心にかゝっている。しかし主に向く時はそのおおいに取除かれる」（第2コリント3章15節16節）

確かに今迄は私の心におおいが掛っていた為に、旧約聖書を読んでもすぐねむたくなっていたのだ。今主はおおいを取除いて下さったのだと思いました。この様にして身体は弱かったけれど霊は増々活気に満たされて信仰生活に励みました。その頃から私は特にシンブソンやウエスレーなどの書物を好んで読む様になりました。彼等の信仰生活は本当に超人間的な神の力によっていつも支配されていた事を知り私は同じ神を信じている者として自分はまだまだ低い所で満足している事を恥しく思い、もっともっと勝利に満ちた信仰生活を送れる様になる事を切望しました。何と言っても私はまだまだ病身でありますから気が弱くなり易く生れながらの神経質な性質も手伝って少しの事にくよくよしてしまい心配の種は多く、特に身体の調子の悪い日などは憂うつな気分支配されました。何物にも妨げられない心の平安に環境に打勝っていつも喜んでいられる心、それ等を私はどんなに望んでいた事でしょう。身体も早く元気になりました。私は何よりも先ず心の完全なる平安を一生懸命神に祈り求めました。漸く寒かった冬も去り、まさに春も始まらんとしていた3月のある日又突如として前と同じ箇所が腸麻痺を起し又すっかり弱ってしまいました。神様はまるでこれでもかこれでもかと言って私を捻じ伏せられる様に何度も何度も試練を与えられるのです

(続く)

奉仕への自覚

関連、青年の集いから



判し、社会に受肉すべきことを強調された。

張牧師は、神戸市などからの多大の援助のものと施設の落成式直後で喜びに満ちた熱の入ったものであった。聖霊信仰により選ばれねばならず自給伝道を行い、そのためには心からの奉仕者が必要であると、子供の成育のようすを折り混ての発題であった。その後約1時間5分間に別れ討論が交わされた。①奉仕の言葉が現代的でない②教会内でしか考えていない③社会への奉仕を④喜びにあふれたものと甘さがありすぎ、厳しさの中で奉仕が考えられるべきだ⑤最も疲れる日曜日の奉仕が真の意味を持ったのだろうか⑥自覚のない惰性の奉仕は意味があるか、等々問題と反省点が出された。

夜の献身礼拝で裴琪煥牧師は主を見つめる所世界理解（ゲ

ットー化されてならないキリスト者）から、總會の立場（和解の僕）奉仕の自覚が考えられねばならない。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を青年が積極的に負うべきだ。とそれぞれ熱のこもったものであったが、残念なことに、プログラムの一貫性と意図とが合致しなかったためか、特に特別講師の両氏の発題が宙に浮いてしまった。

最後の20項目に渡る宣教決心書が30余人の提出しかなかったことからしても奉仕の自覚が十分に徹底され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ようで、時前の検討がもっと必要であることが痛感させられた次第である。

信仰の証しが奉仕であり、生きた信仰は、その実存にあることをつけ加えて、今後の青年の活躍を期したい。

(忠)

聖書通信講座を受けよう

★日本語版（1～5課）子供用もあり

★韓国語版（1～4課）

無料です。正しい教理と要書の基本知識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

申込 東大阪市南荘町9-18

在日大韓基督教 枚岡教会内

電話 枚岡(0729)82-4368番